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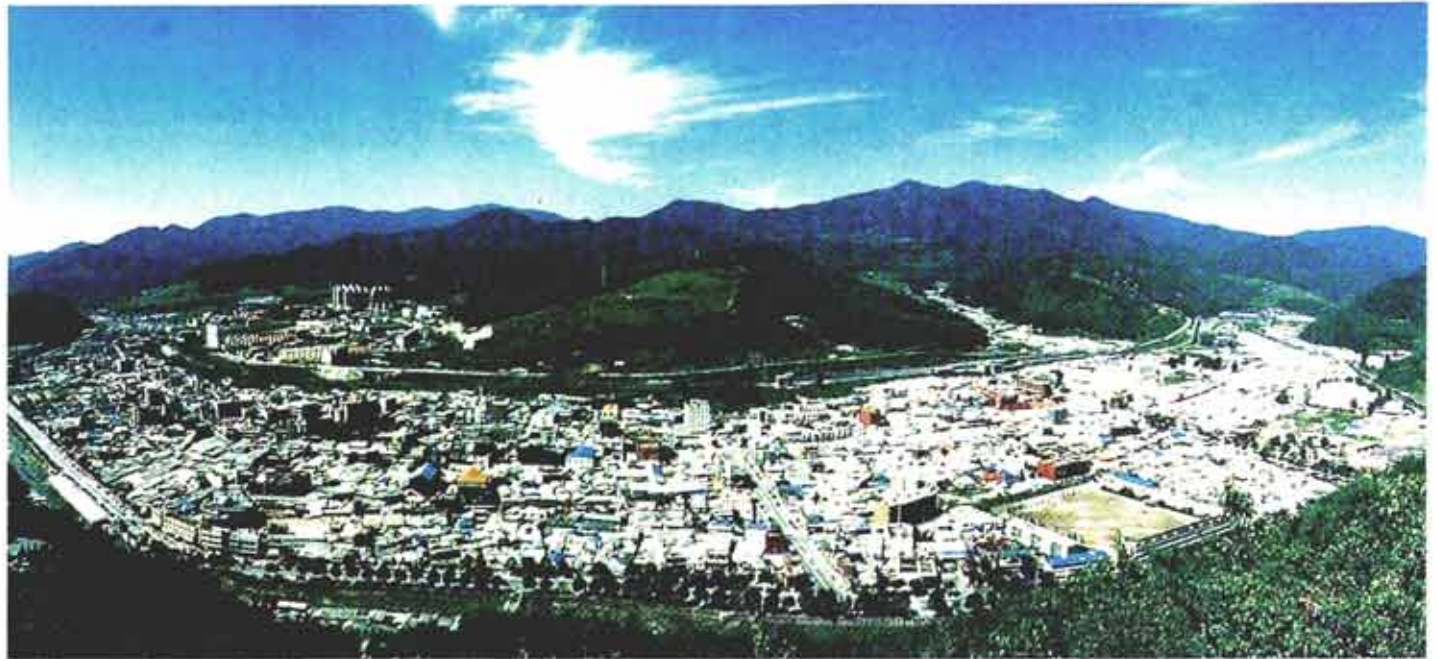
# 태백산

월 1회 연재

##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 6 ←

백두대간을 소백산에서 거슬러 올라가 만나 태백산(太白山 1567m)은 거대한 태백산맥의 중주이자 모산(母山)이다. 북으로 두타산, 오대산, 설악산,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은 함경남도 원산의 황룡산에서 비롯된다. 북쪽 인근에 6미터가 더 높은 함백산(1573m)과 어깨를 겨루고 있으며 서쪽의 장산, 남서쪽의 구운산, 동남쪽의 청옥산, 동쪽의 연화봉 등 1천미터가 넘는 준령들을 휘감고 있다. <삼국사기>는 태백산을 토함산, 지리산, 계룡산, 부악(팔공산)과 더불어 신라의 오악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삼척 읍지인 <삼척진주지> 청주부(淸州賦)에는 '태백산 중에서 가장 높고 흰 산이 문수산이며 흰오래와 자갈이 눈 덮힌 듯 쌓여 있어 산이름을 태백산이라 부르게 됐다'고 전한다.



태백과 함백산이 어깨를 겨루며 힘찬 준령들을 뿜어내리는 곳에 위치한 태백시는 석탄산업에 이어 고원 관광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태백시 동쪽에서 바라본 시가지와 태백·함백산 줄기. (사진제공: 태백시청 문화공보실)

# 한반도 적시는 큰 젓줄기 분출

고 아득한 태백산을 서쪽에서 바라보니 기암괴석이 구름 사이에 솟아있네. 사람들은 산마루 신령님의 영험이라 말하는데 분명코 천지의 조화로세.

조선시대의 문장가 실장 김시습은 태백산을 바라보며(望太白山) 이렇게 읊었다. 기암괴석과 구름이 자아내는 신령스런 분위기, 그리고 낙동강과 함강, 오십

천의 발원지를 품고 있어 반도를 적시는 큰 젓줄기를 분출하는 산이자 하늘과 인간을 잇는 영산(靈山)으로 받아들여지는 태백산.

태백산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다. 신라의 대국통(大國統) 자장스님이 창건한 정암사가 가장 큰 절이다. 함백산 아래에 위치하지만 옛날에는 태백과 함백을 합쳐 태백산이라 했으므로 태백산 정암사로 불리고 있다. 봉화쪽에는 각화사가 조선조때 사교(史交)의 수호사찰로 번창했으나 6·25전쟁으로 재래의 길을

걷다가 최근 대웅전과 선원이 증정됐다. 결계대가 되면 각화사에는 운수남자들이 지팡이를 끌고 찾아 오고 인근에 자리한 암자에서는 결계와 해계를 가리지 않는 수행자들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정진의 끈을 다잡고 있다.

### 하늘과 인간 잇는 산

태백산 정상에 이르는 길에는 청원사와 유일사 망경사등이 있다. 그러나 정란에 의한 파손과 열악한 복구 여건으로 큰 가람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화재도 전하지 않는다.

당골에 위치한 청원사는 일 마당에 '용담(龍潭)'이라는 맑고 깊은 연못이 있어 관림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망경사는 천재단 바로 아래(10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결계에 용정(龍井)이 있다. 청원사의 용담과 망경사의 용정,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등 이지역의 우물들에 하나같이 용자가 들어가는 것은 용과 관련된 정설 때문이다. 그만큼 태백산은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신비한 곳으로 민간에 인식되어 왔음을 알해주는 대목이다.

태백산은 하늘과 인간을 잇는 으뜸가는 성소(聖所)로 공한다. 정암의 천재단은 둘레 27m, 높이 3m, 폭8m의 원형 제

단으로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지방 수령들과 백성들이 종년과 국태민안을 빌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구한 말에는 유국지사들과 독립군들도 쓰러져 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지금도 매년 개천절마다 천재를 지내고 강원도민 체육대회와 성화 재화지이기도 하다. 1991년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됐다. 근처에 하단과 장군단등 작은 제단 2개가 더 있어 태백정암의 신성함을 더해준다.

이 밖에도 정암에 이르는 길에는 영평 청령포에 유배되어 비운의 일생을 마감한 단종의 넋을 위로하고자 세운 단종비와 비각이 있을뿐 아니라 화방재 인근에는 단종대왕당까지 지어져 단종의 애痛

함을 위로하는 산으로서의 태백산이 갖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검은 노다지' 관광지로

오늘의 태백산은 근현대 한국인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진 사천절과도 같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 정암의 천재단을 찾는다면, 석탄 산업의 흥성과 쇠락, 그리고 고원관광 도시로 새롭게 일어 날 재배를 갖추느라 분주한 곳이 태백산에 걸친 도시들의 초상이기 때문이다.

태백에서 석탄이 처음으로 발견된 곳은 문수봉 아래의 산골마을 금천이다. 1926년 당시 황지에서 면사무소 소사로 일하던 17세의 장해룡이라는 청년이 먹

물레기 언덕 근처에서 검은 돌덩어리 하나를 줍는데서 태백의 석탄 산업은 시작됐다.

1930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은 1950년대 이후 한때 43개에 달하는 탄광이 태백산에 밀집하기도 했다.

태백산은 석탄이라는 내장(內臟)으로 인간에게 산업개발과 난방의 원료를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일지러 없는 사랑에게는 '검은 노다지'로 한 말천을 잡으려는 꿈을 주는 산이었다. 대체 에너지가 대량화 되어 석탄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태백산이 더 이상 검은 노다지의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 태백산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꿈의 현장이 되고 있다. 태백과 사북 고원 등 태백 준령 아래 도

사람들이 '계도 만민짜리 재배를 물고 다닌다'는 흥성을 다시 꿈꾸게 된 것은 몇 년전 이 지역을 대규모 고원 관광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부터 시작됐다.

풍년·국태민안 빌어

스키장과 콘도미니엄은 물론 카지노장까지 들어서는 대규모 워낙 단지 개발로 태백산은 이제 갈살마저 인간에게 내주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된 것이다.

말이 없는 태백산 인간에게 내장과 같살을 하얗게 내주면서도 골짜기마다 옥수를 물러 보내고 계절따라 기묘한 풍경을 연출하는 산이 있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경도 때문에 태백산의 속살이 조금씩 함몰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산의 고도가 낮아지고 지표가 변한다는 보고가 아니라더도 이 지역 사람들은 바위들의 긴박이 아주 조금씩 넓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없는 산이 인간의 탐욕을 향해 말없이 내리는 경도가 아니겠는가.

글=임연태 사진=고명배 기자 (yilm@buddhapia.com)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태백산 정암의 천재단.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풍년과 국태민안을 비는 성스러운 제단이다.

## 정암사 수마노탑·보궁 유명

청원사 용담·망경사 용정 등 龍전설 전해와 갯도 함몰로 고도변화 '인간 탐욕심' 경고



태백산 입구 청원사의 길고 맑은 용담.

단으로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지방 수령들과 백성들이 종년과 국태민안을 빌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구한 말에는 유국지사들과 독립군들도 쓰러져 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지금도 매년 개천절마다 천재를 지내고 강원도민 체육대회와 성화 재화지이기도 하다. 1991년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됐다. 근처에 하단과 장군단등 작은 제단 2개가 더 있어 태백정암의 신성함을 더해준다.

이 밖에도 정암에 이르는 길에는 영평 청령포에 유배되어 비운의 일생을 마감한 단종의 넋을 위로하고자 세운 단종비와 비각이 있을뿐 아니라 화방재 인근에는 단종대왕당까지 지어져 단종의 애痛

함을 위로하는 산으로서의 태백산이 갖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 '검은 노다지' 관광지로

오늘의 태백산은 근현대 한국인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진 사천절과도 같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 정암의 천재단을 찾는다면, 석탄 산업의 흥성과 쇠락, 그리고 고원관광 도시로 새롭게 일어 날 재배를 갖추느라 분주한 곳이 태백산에 걸친 도시들의 초상이기 때문이다.

태백에서 석탄이 처음으로 발견된 곳은 문수봉 아래의 산골마을 금천이다. 1926년 당시 황지에서 면사무소 소사로 일하던 17세의 장해룡이라는 청년이 먹

물레기 언덕 근처에서 검은 돌덩어리 하나를 줍는데서 태백의 석탄 산업은 시작됐다.

1930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은 1950년대 이후 한때 43개에 달하는 탄광이 태백산에 밀집하기도 했다.

태백산은 석탄이라는 내장(內臟)으로 인간에게 산업개발과 난방의 원료를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일지러 없는 사랑에게는 '검은 노다지'로 한 말천을 잡으려는 꿈을 주는 산이었다. 대체 에너지가 대량화 되어 석탄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태백산이 더 이상 검은 노다지의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 태백산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꿈의 현장이 되고 있다. 태백과 사북 고원 등 태백 준령 아래 도

사람들이 '계도 만민짜리 재배를 물고 다닌다'는 흥성을 다시 꿈꾸게 된 것은 몇 년전 이 지역을 대규모 고원 관광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부터 시작됐다.

### 풍년·국태민안 빌어

스키장과 콘도미니엄은 물론 카지노장까지 들어서는 대규모 워낙 단지 개발로 태백산은 이제 갈살마저 인간에게 내주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된 것이다.

말이 없는 태백산 인간에게 내장과 같살을 하얗게 내주면서도 골짜기마다 옥수를 물러 보내고 계절따라 기묘한 풍경을 연출하는 산이 있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경도 때문에 태백산의 속살이 조금씩 함몰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산의 고도가 낮아지고 지표가 변한다는 보고가 아니라더도 이 지역 사람들은 바위들의 긴박이 아주 조금씩 넓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없는 산이 인간의 탐욕을 향해 말없이 내리는 경도가 아니겠는가.

글=임연태 사진=고명배 기자 (yilm@buddhapia.com)

### 자장스님 석혈

### 만항리 뒷산 바위틈 '유골안치' 구전

수마노탑(보물 제410호)으로 잘 알려진 정암사. 폐광과 폐사육들이 즐비한 고한 지역의 스산한 풍경이 끝나는 곳에 정갈한 정암사가 있다. 시절 인연을 따라 흥망하는 인간 삶의 현상이 끝나는 곳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보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귀한 법문이 아닐 수 없다.

정암사는 신라시대에 들어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돌아와 대국통에 올랐던 자장스님이 창건했다. 당시 이름은 석남원(石南院)이었다. 스님은 당에서 문수보살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는데 이 석남원 자리가 문

수보살을 재전견할 자리라 믿고 절을 지어 정진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자장스님은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넣고 찾아 온 남부한 노인을 만나지 않아 문수보살을 재전견 하지 못한 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렇다면 정암사의 어느곳에서 자장스님이 열반했는가. 그 열반지로 꼽히는 곳이 지금의 정암사에서 조금 올라간 곳에 자리한 적조암이란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자장의 시신을 대비하여 그 유골을 바위굴에 안치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요즘사람들에게 그 바위굴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정암사에서 만항재를 오르는 중간쯤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다. 만항 마을이다. 이 마을의 동북쪽에는 막 피어나려는 듯 풍긋한 봉우리가 하나 솟아 있는데 이 봉우리의 정상 아래에 자장스님의 유골이 모셔졌었다고 전하는 바위가 있다. 자장 석혈(石穴)이란 바위다.

마을 사람들은 50여년 전까지만 해도 수마노탑과 같은 재질의 석함(石函)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장스님의 유골을 모신 함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취재팀이 마을 노인의 말을 듣고 찾아 간 바위는 그다지 크지도 않고



자장스님

누군가 보호를 하는 흔적도 없고 그저 평범한 바위였다. 유골을 모셨을 것 같은 흔적은 40cm 정도의 틈새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바위에 얼핏 연꽃 문양 같아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고 무속인들이 만든 듯해 보이는 단이 두세 겹으로 붙여져 있었다.

정년 그곳이 자장 스님의 유골이 모셔져 있던 바위굴이라면 우리는 적지 않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



자장스님의 유골이 담긴 석함은 안치됐었다는 만항리 뒷산의 바위.

### 용성스님 어록

착한 것도 몽환(夢幻)이요, 악한 것도 몽환이니 상계대몽 어서 깨어 나의 본성 통달하면 생사윤회(生死輪廻) 본래 없다.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경주 천룡사(0561-748-8815)